韓國文學論叢 第20輯(1997. 6) pp. 231~245

유치환의 초기시에 대하여

박 철 석*

차 례

1. 『참새』 동인지와 청마
2. 토막시 「短歌」의 내용
3. 청마시와 모더니즘
4. 『초고집 1』, 기타

1. 『참새』 동인지와 청마

『참새』는 1926년 8월에 <통영참새모임회>가 중심이 되어 간행한 동인지이다. 회원은 쇠뫼 金琪澤, 玉峯 金俊鎬, 白鳥 金南柱, 눈샘 金洛濟, 눈뫼 金元柱, 金性斗, 春岡 高斗東, 香園 李賢雨, 참뫼 李瓚根, 흰뫼 李富根, 白坡 李英煥, 雪川 李起瑄, 白水 梁基守, 曉天 鄭順鍾, 돌뫼 劉碩順, 曙山 朴益模, 늘샘 卓相銖, 秋塘, 흰샘 등 19명인 바 이들 중 秋塘과 흰샘은 진주 기생이었다 한다. 이 모임의 핵심 인물은 늘샘 卓相銖이며 창간호에는 서시를 비롯하여 61수의 동인 작품이 실려 있고, 2집은 1926년 9월에 간행, 고시조 2수, 동인작품 62수에 공동제(귀뚜라미) 특집으로 묶었고, 3집은 1926년 10월에 고시조 2수, 동인 작품 55수를 실었고, 4집(「제2호 1권」, 1927년 새해 증대호)에는 시조 67편, 시 7편, 가사 1편, 평론(시조 기본틀에 관한 글) 1편, 한시 10편, 희곡 1편 모두 87편이 실려 있다. 출판 사정은 1호부터 4호까지 프린트판으로 되어 있고, 발행 부수는

* 전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0부[1] 안팎이었고, 「회원 주소록」을 살펴보면 통영을 거점으로 내노라 하는 문학 지망생은 거의 망라된 느낌이다. 그런데 『참새』 동인지 1호부터 3호까지는 청마의 작품이 보이질 않으나 4호 즉 1927년 새해 증대호에는 청마의 작품 「短歌」 9편이 실려 있다. 또한 청마의 작품 바로 뒷면에 柳致眞의 희곡(改譯이라고 적혀 있다) 「墳墓淸爭」이 실려 있다. 회원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것을 보면 유치진, 유치환은 모두 비회원 자격으로 작품을 싣고 있으며, 유치진, 유치환의 이름 아래 「寄」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寄稿」의 뜻으로 편집자 임의로 써 넣은 것 같다. 『참새』 동인이었던 皇山 고두동은 그 당시 24세였고 동인 중에서 가장 나이 어렸다고 한다. 皇山보다 네 살 아래인 청마는 발표 당시 나이 20세, 동래고보 5학년 졸업반이었고, 유치진은 일본 立敎大學 영문과 1학년이었다. 皇山의 말을 빌리면 청마는 나이 어려서 회원이 못되었다는 것이다. 『참새』 제 4집 목차를 살펴보면 이름 아래 「寄」자가 붙어 있는 사람은 모두 12명이나 된다. 이 책의 중간 「社告」에는 한 달에 회비 「壹圓式」 납부하게 되어 있고, 이 책의 편집을 맡았던 늘샘이 적은 「편집여화」에 "우리 참새가 그 동안 原稿不足과 編輯者의 形便에 끌니어 번번히 늦게 나와서 여러벗님들의 만은 寄稿를 바다오던 바~" 등을 미루어 보면 회원 자격 규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청마의 형 유치진의 「나의 수업시대」[2]에는 청마가 최초로 동인활동을 한 것은 1925년 「土聲會」[3] 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해 『참새』지 4호에 발표한 「短歌」와는 2년의 사이가 생긴다. 여기서 유치진의 진술을 들어보자.

> 土聲會는 나의 故鄕의 友人과 先輩로서 조직된 文學靑年의 모임이었다. (중략) 그때 멤버를 대강 생각하여 보면 朴明國, 金星柱, 崔杜春, 張虛, 그리고 나의 아우인 致環 외 七, 八名이었다.(중략) 문학청년의 하는 常習으로 우리도 同人誌를 가졌다. 同人誌에는 詩가 만헛다. 나는 청피막심한 시를 썼다. 致環은 그때 중학 2,3학년의 少年이었으나 상당한 詩才를 보이고 있었다.
>
> 유치진 「나의 修業時代」

1) 시조시인 고두동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2) 유치진, 「나의 修業時代」, 동아일보 (1937. 7. 22)
3) 노고수, 『한국동인지 80년사 연구』(소문출판인쇄사, 1991. 11), 50쪽에 보면 『토성』 3호는 1925년 5월에 간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토막詩 「短歌」의 내용

청마의 최초의 시 (현재까지 밝혀진) 「短歌」는 모두 9편의 짧막한 시다. 「短歌」말미에 적혀 있는 「附設」에 '이멧篇의 토막 詩를 爲先 短歌라고'한 것을 보면 토막詩 9편을 한 묶음한 이름을 달리 「短歌」라는 것이다. 토막詩 9편은 모두 4행으로 되어 있고, 기본율은 7·5, 7·5이다. 「短歌」에서 보인 4행시는 뒤에 5행시 또는 6행시로 바뀌지는 것을 볼 수 있다.(5행시는 『청령일기』에 실린 「無爲抄」에서 볼 수 있고, 다시 그의 『초고집1』에서 4행시 내지 6행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마의 「短歌」는 일본 고유의 短歌와는 무관하다. 비슷한 점이 있다면 구성적 요소 즉 통일적 효과면에 있어서 비슷할려지는 모르나 청마의 「短歌」가 4행의 7·5, 7·5 기본형인데 일본의 단가는 3행 7·5, 7·7의 기본형으로 되어 있다. 청마의 「短歌」 9편을 몇 묶음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 본다.

맑은 밤 우르르니
뭇별 사이로
내 너기는 九天을
달음질처라

××

먼 바다에 떠잇는
흰 돗단 배는
볼 때마다 엇전지
졸음이 와라

××

彩雲 사이 보이는
靑天과 가치
내 마음은 맑고도
놉직하여라

여기 세 편을 묶어 소개하는 것은 주제가 같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短歌」란 시 제목 아래 9편이 連詩 형식으로 이어져 있어 필자의

편의에 의해 나눈 것 뿐이다. 인용한 세 편의 토막시는 특별한 비유를 쓴 것도 없고 자연을 바라보는 느낌을 시로 표현한 것 뿐이다.(이런 경우 직관적이란 말로 바꿔도 무방하다.) 청마는 어디선가 자신의 시를 설명하는 글에서 「사고와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첫번째 시는 밤하늘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면서 동화되고 싶은 심정을 담았고, 두번째 시는 먼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단배를 바라보면서 볼때마다 졸음이 온다고 했고, 세번째 시는 첫 번째 시와 마찬가지로 빗긴 구름 사이 바라보이는 푸른 하늘과 동화되고 싶은 심정을 담고 있다. 스무살에 쓴 작품치고는 너무 어른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자연과 교감을 나누고 싶은 명상가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문장(詩文)도 부자연스럽고 '九天', '靑天' 같은 단어도 퍽 어색하다. 바다, 하늘, 산 등은 그의 시에 즐겨 찾는 소재인 바 위의 인용시에서도 바다가 한 번, 하늘이 두 번 등장한다.

秋天 싯헤 떠도는
흰 구름덩이는
언제 봐도 微笑가
절로 나여라

× ×

虛空을 바라보고
웃는 허잡아
늦가을의 寂寞을
깨트리련가

× ×

먼 곳에서 들니는
밤車 소리여
相思의 외론 맘을
실ㅅ고 가여라

첫번째 시는 가을 하늘을 바라본 시인의 평온한 심정을 노래하였고, 두번째 시는 늦가을 풍경을, 세번째 시는 밤車 소리에 반응되는 시인의 외로운 심사를 각각 노래하고 있다. 앞에서 보와온 시편들과는 수준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시의 구문도 탄력성이 없고 엉성하다. 그뿐 아니라 '秋天', '微笑', '虛空', '寂寞', '相思' 등 단어들도 생경하다. 그의 시편(청마의 12권의 시집에 나오는 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가을 하늘과 흰 구름이 등장된다. 흰 구름과 시인의 마음이 어우러지는 느낌을 주는 시다. 다시 말해 자연과 시인은 하나임을 노래하고 있다. 현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자연과의 교감같은 거라 할까. 두번째 시에서 가을 들판에 서 있는 허수아비를 등장시킨 것은 늦가을의 적막한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세번째 시는 시의 초심자에게 통과의례와 같은 단순한 애정시편이다. 구체적 대상은 없으나 밤車 소리에 촉발되는 외로운 감정을 '相思'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깊숙히 바라보는
님의 눈이여
무엇을 알으케란
말이오니까

××

토막난 님뵌 꿈을
나의려 하든
그런 밤은 웨 그리
잠 안들던고

××

學校서 돌아오면
허통한 方이
너무나 쓸쓸해서
울음웃날아

위에 인용한 세 편의 작품 중 첫번째와 두번째는 사모의 정을 담은 것이고, 마지막 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쓸쓸함을 노래한 것이다. 여기서는 관념적인 한자어는 없고, 자기류의 말의 결 같은 것도 보이질 않는다. 비유라든가 시적 감각도 찾기 어렵다. 첫번째 시 '알을케란'은 알으켜 주는 방언인 것 같고, 두번째 시 '니으려'는 잊으려의 뜻이고, 세번째 시 '허통한'은 텅 비어 있는 뜻이겠고, '方'은 '房'의 오기일 같고, 끝탱 '울음웃날아'는 '울음 우노라'의

뜻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短歌」 9편이 차지하는 문학사적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첫째 이 작품이 발표될 무렵 한국문단은 계급주의 문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청마의 시는 그러한 좌경문학에 오염되지 않고 자기류의 관념 즉 자연과 자아의 문제를 시의 주제로 삼았다는 점 둘째, 한국 근대 시사(詩史)에서 처음으로 4행시를 시험했다는 점, 셋째, 청마시의 출발(효시)을 1927년로 소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3. 청마시와 모더니즘

청마에게 1930년대는 40년간의 시작 생활 중 가장 창작의욕이 왕성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연보에 의하면 1950년대가 가장 작품을 많이 발표했고, 1930년대는 두 번째 해당된다) 이 시기에 그의 관심은 세계와 자아의 문제, 도시문명에 대한 자기 생각, 자연과 인가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시의 소재가 다양하다는 것은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당대 이데올로기문학과는 무관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청마는 이미 이 시기부터 시에 대한 자기나름의 생각(觀)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시에 나타난 사상도 특이하거니와 시에 사용되고 있는 시어 역시 당대 시문학파 시인들의 시어와 비교하여 보면 판이하다는 느낌이 든다. 첫째, 이 시기에 발표한 작품 속에 사용된 시어들을 간추려 보면 '慄悍' '貪婪' '怪物' '老耄' '陰寒' '岸頭' '寒寒' '滿目' '雜遷' '亡滅' '墟廢' '天綠' '夜番' '上熱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한자어는 옥편이나 국어사전에는 있는 것도 있고, 청마 스스로 개발(창조)한 한자어, 나아가서 일본식 한자어도 보이다. 청마가 일찍이 "나는 詩人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의도가 빈번한 한자어 사용과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둘째, 청마의 초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모더니즘에의 관심이다. 이에 대한 좋은 보기로서 1934년 『新東亞』에 발표한 「都市詩抄」라는 일련의 연작시를 들 수 있다.

빌딩

폼페이 最後의 날
그날의 破滅을 더욱 壯觀케 하랴고
圓念히 쌓아올리는 雄大한 셋트!

自動車

出沒自在한 黑光의 이 爬蟲類를
機械文明의 가장 慓悍한 前哨兵!
뵈이잖는 貪婪한 隻眼怪物의
그 敏活한 觸手!

救×軍

偉大한 돈·키호테氏들
북 나팔이 파철이 되도록 그 狂信을
先明한 異端의 거리에 强賣하라
서러운 罪惡의 雙生兒!
주정뱅이의 良心!

인용시 3편은 「빌엉맹이」, 「街路樹」 등과 함께 「都市詩抄」 안에 들어 있는 소품의 시다. 삭막한 도시를 바라보는 시인의 태도는 부정적이다. 가령 하늘로 치솟아 있는 빌딩가를 폼페이 최후의 날의 한 장면을 상상한 것과, 아스팔트 위를 날세게 달리는 자동차를 "出沒自在한 黑光의 이 爬蟲類", "機械文明의 가장 慓悍한 前哨兵", 또는 "뵈이잖는 貪婪한 隻眼怪物"의 촉수 등의 표현은 매우 풍자적이다. 당돌한 비유, 물질문명에 대한 거부감, 반예술적 태도 등은 다다적인 경향이 짙다. 더구나 「救×軍」(「救世軍」인 듯)의 시에서는 구세군의 포교활동을 위대한 돈·키호테의 과대망상으로 보고, "失明한 異端의 거리에 强賣하라", "서러운 罪惡의 雙生兒" 또는 "주정뱅이의 良心"으로 비유한다. 이와 같은 당돌한 표현은 한국 근대시에서 보기 드문 일(김화산, 이상이 있기는 하나)로써 다다적 성향이 짙은 작품이라 하겠다. 이 작품이 쓰여질 무렵 청마가 前衛詩를 어느 정도 의식하고 시창작에 임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카톨릭 청년』 『三四文學』지에 창작 활동을 한 것과 정지용, 이상, 정서언 등과 교우가 잦았다

는 것[4]을 미루어 청마는 자기류의 前衛詩를 생각한 것이 아니였을까.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이나마 자기류의 전위시는 그의 자유정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都市詩抄」와 같은 시기에 발표한 「海獸」를 읽어보면 지용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감각언어가 몇군데 보이기는 하나 시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청마의 모더니즘 성향의 한계성을 짐작할케 한다.

冬至달 치운 바다까 양지쪽에
가맣이 그물을 꾀매고 모여 앉었는 이들은 海獸다!

어제막 黑濤 밑에서 털고 올나온 海棲獸다!
지금 이들의 넋은 茫茫한 海洋에 출렁거리고
크다란 그 눈은 千尋의 海底를 드러다보고
그 구리빛 몸뚱이는
萬疊의 激浪앞에 바위같이 막아서서
獸性의 敏捷함을 가저
물밑의 魚群을 모조리 쳐넘기나니

이 거츠른 海獸의 꿈은
저 琉璃빛 世界에 사는 銀빛 날개 돋힌 魚族의
그 어름알같은 매운 넋을 좇아서 마지안나니
아모리한 嚴冬의
잡으면 단줄이 손에 어러붙은 날세에도
默默히 그들은
저 海原의 波濤속을 찾아 나아가나니
(5행 줄임)

그리고 그들이 設令 怒濤狂浪에 쓸리어 죽어도
그들의 넋은 다시 도라오지 안하리니
銀빛 魚族을 좇아서
永遠히 저 琉璃빛 世界에서 사러라

작품 「海獸」에는 "故鄕의 勇敢한 漁夫들에게"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부제가 시사해 주듯이 고향의 해우창생들의 건강한 생활상을 그린 작품이다. 2연에서는 어부를 총체적으로 "어제막 黑濤밑에서 털고 올라온 海棲獸"에 비유했으며, 어부들의 넋, 눈, 구리빛 몸둥이는 "萬疊의 激浪앞에 바위같이 막아서서" "獸性

4) 유치환, 「靑馬시집」, 문학세계사(1993), '「청마시초」' 무렵, 137쪽.

의 敏捷을 가져" "물밑의 魚鮮을 모조리 처넘기"는 억센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3연에서도 2연과 같이 "魚族과 惡鬪"(5행 줄인 대목임)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종연에서는 "設令 怒濤狂浪에 쓸리어 죽어도" 그들의 넋은 삶의 터전인 바다를 떠나지 말라고 잠언조로 끝나고 있다. 이렇듯 시 「海獸」가 갖고 있는 언어관과 남성적인 사상은 확고한 것이지만 가령 '구리빛 몽뚱이', '琉璃 및 世界', '銀빛 날개', '銀빛 魚族' 같은 감각 언어들은 당대의 모더니즘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4. 『초고집 1』, 기타

『생리』·1집에는 청마가 직접 편집 및 발간의 책임자로 있었으나 발표한 작품수는 「深夜」, 「蒼空」, 「까지」 모두 3편 뿐이다. 이 3편 중 「深夜」만은 첫 시집 『청마시초』에 수록되어 있고 「까지」는 빠져 있다. 오히려 「深夜」보다 서정적이고 시전체로 보아 탄력성 있는 「까지」를 홀대한 것은 청마의 실수가 아니였을까.

落落한 외나무 가지에 깃을 짓고
호올로 높히 사는 새 잇나니
烈烈한 치위
내물은 얼고 동무 새는 다가고
오오 적은 새의 哀傷은 푸르러 玉 갓것만
스스로 외로움에 한 슬픈 習慣 잇서
주우리면 아침 서리 짓흔 따헤
季節박ㅅ의 아쉬운 미씨를 줍고
저 遙遠한 滿目의 滿目의 寂寥에
초라히 쪼구리고 사는 새여

「까지」(『생리』 2집, 1937. 10.)

청마시의 큰 흐름은 言志를 토대로 한 관념시 성향과 애련에 젖은 서정시의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그의 초기시를 예를 들어보면 「日月」, 「怨讐」 같은 시편은 전자의 부류이고, 「깃발」, 「그리움」 같은 작품은 후자의 부류에 속한다. 인용시 「까치」는 시집

『생명의 서』에 실려 있는 「春信」에서 새를 노래한 대목인 "꽃등인 양 窓 앞에 한 그루 되어 오른" "살구꽃 연분홍 그늘지게 새로" "작은 멧새 하나 찾아와 무심히 놀다 가나니"와 비교하여 보면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시 「까치」가 겨울을 배경으로 한 것과 「春信」이 봄을 배경으로 한 것이 사뭇 다르나 자연을 접하는 관조적 태도는 비슷하다. 「까지」는 결작 「春信」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작품으로서 별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까치」의 경우, 생각이나 상이 흐트러져 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점층과 귀납적 방법으로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령 "내물은 얼고 동무 새는 다가고", "오오 작은 새의 哀傷은 푸르러 玉갓것만", 감각의 탁월함도 보여준다.

다음은 『초고집 1』에 실려 있는 41편의 작품 가운데 청마의 초기시 성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작품에 대하여 연구의 대상을 삼고자 한다. 여기서 『초고집 1』이라 함은 청마가 보관하고 있던 공책의 표지에 적힌 시집 이름을 말하며, 『초고집 1』 글씨 바로 밑에 '靑馬詩抄 以前'이라 적혀 있으며 『초고집 1』은 미발표작과 일부는 기히 발표했던 것을 다시 손질하여 갖고 있었던 것이라 짐작된다.[5]

솔밭에는 솔바람 여울이 울고
솔바람 여울 위에 가치떼 설레고
가치 설레는 위에 하늘만 푸르고
내사 외로워 생각이고 무에고

「솔밭에 와서」

위의 시는 발표 당시의 것과 대조를 해 보지 않아 어느 정도 개작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우선 그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한문투 시어가 없고 언어구사가 한결 부드럽고 시전체의 짜임새가 탄력성도 있어 보인다. 『초고집 1』에는 위의 인용시 이외에도 4행시가 두 편, 6행시가 한편 보인다. 1927년 『참새』지에 발표한 「短歌」 9편이 모두 4행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마시를 총체적으로 보면 短詩形은 하나의 定形처럼 인식된다.(뒤에 시집 『청령일기』안에 「無爲抄」가 4행시로 되어 있다) 이런 단시형의 경우 言志보다 시적미에 탁월

5) 1934년 『中央』지 4월호에 실린 「마음의 나무」 말미에 詩集 '樹林과 蒼空에서'란 글귀가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시집이 간행된 바 없다.

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위의 인용시만 보더라도 메시지보다 어떤 정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언어도 세련되고 정서도 부드럽다. 시가 짧은 만큼 군더더기가 없고 시전체의 탄련성도 돋보인다. 솔바람→솔바람 여울→까치떼→푸른 하늘, 대개 이런 순서로 이미지를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끝행에는 청마다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것은 다름아닌 "내사 외로워 생각이 무에고"에서 여운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은 화자의 의도가 은영 중에 담겨 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시야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심사라 하겠다.

白金빛 햇볕 담장 안에 넘어 차고
부엌 문턱엔 금파리 왱당거리는데
한잠에 오른 누에처럼 꿈밭에 머리를 묻고
재워 두고 간대로 갓난이만 집에 있다

「村家夏景」

앞에서 인용한 「솔밭에 와서」는 어떤 정황을 제시해 놓고 그러한 정황(자연)에 동화 될 수 없는(영적 교감 같은 것) 인간의 고독을 내용으로 한 것이라면 위에 인용한 시 「村家夏景」은 어촌의 한 장면을 보여줄 뿐 言志와는 무관하다. 첫행에 보이는 '白金빛 햇볕' 만 하더라도 言志보다 언어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슷한 시편은 「春信」, 「秋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을 청마류의 회화시라 부르고 싶다.

지붕에 박 한 개 가을 볕에 늙고
가지에 마른 잎 소리 없이 떨어지다
하늘은 오직 높으고 비어
마음은 默하여 한개 차거운 돌맹이

「가을의 獨白」

인용시 「가을의 獨白」은 발표 당시에는 「가을의 Mlonologue」로 되어 있는 것을 내용을 손질하면서 시의 제목도 우리말로 바꿔 놓았다. 시의 길이도 4행이다. 청마시의 최초의 모습을 드러낸 「短歌」의 4행은 7·5, 7·5의 운율을 갖고 있으나 『초고집 1』에 보여주는 4행시는 정형율에서 벗어난 자유시형으로서의 4행시이다. 인용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행은 늦가을의 정경으로서 지붕 위에 가을볕이 조을고 있고, (여기서는 늙는다고 표현하고 있다) 2행은 마른 나뭇

잎이 소리없이 떨어지고 그 다음 3행은 "하늘은 오직 높으고 비어"로 늦가을의 정적과 허전함을 알리고 마지막 행은 1행부터 3행까지 제시한 서경과는 달리 자신을 '차가운 돌맹이'에 비유함으로서 주제의 깊이를 더해준다. 다시 말해 1행부터 3행까지는 이 작품의 배경에 불과하며 중요한 대목은 4행 "마음은 默하여 한 개 차가운 돌맹이"라 하겠다. 청마의 초기시에서 널리 알려진 「靜寂」에서도 자신의 넋을 "적은 돌맹이"에 비기고 있다.

청마는 굳이 자신의 넋을 '돌맹이'에 비유한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인용시 1행부터 3행까지는 자기를 둘러싼 넓은 우주공간이라 하면 4행은 그러한 무한대한 넓은 공간(우주)에 자신의 존재가 왜소하고 하잘 것 없음을 보여준다.

아득한 記憶의 年輪을 넘어서 여기
짐승 같이 땅을 뚫고 隆隆히 자랐나니
이미 몸둥이는 龍의 비눌을 입고
소소히 허공을 향하여 여울을 부르며
세기의 계절 위에 오히려 정정히 푸르러
전전 반측하는 고독한 地表의 一邊에
치어든 이 不死의 想念을 알라

「老松」

여기 정정히 검은 솔이 있어

오랜 세월
瑞雲이 서리지 않고
白鶴도 내리지 않고
먼 인류의 즐거운 조석은
오히려 무한한 밤도
등을 올려 꽃밭이건만
아아 이것 아닌 목숨
스스로 모진 꾸짖음에 눈감고
찬란히 우주 다를 그날을 지켜

정정히 죽지 않는 손이 있어
마음이 있어

「老松」

인용시 두 편은 각각 발표한 시기가 다르다. 앞의 「老松」은 1937년 『朝鮮文學』에 발표하였고 뒤의 「老松」은 시집 『청령일기』에 실려 있다. 앞의 시가 창마의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라면 뒷편의 시는 중기에 해당한다. 뒷편의 시는 앞의 시에 비해서 한문투의 의고풍이 사라지고 시의 길이도 짧고 표현도 세련되어 있다. 시인에게 십여년의 시간이 무섭다는 느낌이 든다. 전 후시를 비교하여 보면 앞의 시에서는 노송의 끈질긴 생명력을 돋보이기 위해 "몸둥이는 龍의 비늘을 입고" "소소히 허공을 향하여 여울을 부르며" "세기의 계절 위에 오히려 정정히 푸르러" 등 결맞는 수사를 동원하고 있음에 비해, 뒤의 시는 수사보다 분위기에 보다 치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송을 인식하는 태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예컨대 앞의 시는 암흑한 세월을 이겨내는 불사조 같은 자기 극기의 모습을 보여준 데 비해 뒤의 시는 "스스로 모진 꾸짖음에 눈 감고" "찬란히 우주 다를 그 날"를 지키는 (노장의 運命隨順과도 같은) 우주와 화자의 마음이 합일에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과 마침내는 "정정히 죽지 않는 솔" 즉 종교와도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청마시에서 산과 나무는 즐겨 쓰는 소재인데 나무의 경우 위에 인용한 「老松」 이외에도 시집 『청령일기』에 실려 있는 「나무」가 있고, 수상록 『예루살렘의 닭』에 「巨人」이 있고, 『청마시집』에 「巨木에게」, 『제9시집』에 「매화나무」, 시집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에 「나무여 너에게 할말이 많다!」등이 있다. 다음에서 「나무여 할 말이 많다!」를 살펴보자.

나무여, 너에게 할 말이 많다!

오늘도 나는 원남동 대학병원 뜰을 지나 돌아 오노라니
지척에서 종일을 염열과 스스로의 광분에 쫓기는 거리에는
다시 하루의 피치 못할 失意의 일몰이 밀려 오는데
여기 너희가 팔 뻗고 우거져 사는 마을은
오직 성스러운 짙은 정밀과 화평만이 고요히 서려
더러는 이마에 낙락히 마지막 햇빛을 걸고
바람 기척 하나 느낄 수 없는데도
風月을 읊조리는 長者처럼 조용히 몸짓하고 있고
그 곁엔 높다랗게 올라 앉은 시계탑의 하얀 時間의 얼굴
- 지금 그는 十九時 四十五分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위론

소리없이 펼쳐 물든 진달래빛 꽃물결과
- 片의 조각달 -

아아 여기는 영원한 흐름 중의 일순의 여울목
이 地點에서 나무여, 너희는

먼 산악이 더욱 더 안타까이 발돋움하고 우러러 섰듯
그지없는 목숨의 몸부림과
광막한 非情을 한 품에 안고서
이렇듯 너그러이 우주를 거느렸거니

나무여, 진정 너에겐 할 말이 많다!

청마시에 등장하는 나무는 "고독한 地表의 一邊"에서 "不死의 想念"을 지녔거나 "찬란한 우주 다를 그 날을 지켜" "정정히 죽지 않는" 실재하면서도 실재하지 않는 시인의 관념세계에 존재하는 나무이다. 1937년에 발표한 「老松」과 시집 『청령일기』에 수록한 「老松」과는 그후 1960년에 상재한 시집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에 실려 있는 작품과는 내용상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나무에 대한 상념은 거의 한 곳에 모아 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운명적으로 타고난 존재(나무)가 스스로의 운명을 거역하는 법없이 우주의 섭리를 쫓거나 또는 모진 세월을 참아내거나 이겨내는 초월자의 일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시 「老松」과 바로 위에 인용한 「나무여 너에게 할 말이 많다!」와 비교하여 보면 뒷편의 시가 나무에게 한결 다가 서서 이야기하는 투로 되어 있다. 시적 효과를 위함이리라. 이 시에서도 화자는 자기 존재와 대비시켜 무한한 경외와 믿음을 표한다. 그것은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세상이 "스스로의 광분에 쫓기는 거리"임에 비해 나무는 "風月을 읊조리는 長者처럼 조용히 몸짓하고" "영원한 흐름 중의 일순의 여울목"에서 "그지없는 목숨과 몸부림과" "광막한 非情을 한 품에 안고서" "너그러이 우주"를 거느린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의 모습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말하는 "너그러이 우주"를 거느린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는 다름아닌 "形象도 없는 澎湃한 模糊한 存在"[6]와 같은 개념이다. 다시 말해 "너그러이 우주"를 거느린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 또는 "形象도 없는 澎湃한 模糊한 存在

6) 유치환, 『靑馬詩集』, 문성사(1954), '虛無의 意志 앞에서', 13~14쪽.

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절대 자유를 꿈꾸는 청마의 아니키즘적 사상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유치환, 시집『청마시초』, 청색지사, 1939. 12.
2. _____, 시집『생명의 서』, 행문사, 1947. 6.
3. _____, 시집『청령일기』, 행문사, 1949. 5.
4. _____, 시집『청마시집』, 문성사, 1954. 10.
5. _____, 시집『제九시집』, 한국출판사, 1957. 12.
6. _____, 시집『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동서문화사, 1960. 12.
7. _____, 시집『초고집』(친필 유고집)
8. 『朝鮮文學』, 영인본.
9. 『新東亞』, 1934. 통권 31호.
10. 『中央』, 1934년 4월호.
11. 『참새』, 제3집, 1927, 통영참새모임회.
12. 『생리』, 1~2집, 1937, 생리사
13. 『카톨릭 청년』 영인본
14. 『三四文學』 영인본